

200자 안내

내일을 위하여

백관익 엮음

교육자이자 종교인·정치가였던 백낙준박사가 생전에 유진오·한경직·이희승·김상협씨 등과 나눴던 대담을 모아 엮은 책. 1부는 사회저명인사들과의 대담내용, 2부는 신문·잡지기자들과 가졌던 인터뷰, 3부는 서울신문과 가졌던 '원로와의 대화'를 회고 대담형식으로 실었다. 백낙준박사의 체험적 증언을 통해 한국근대사 및 현대사의 교육철학·종교관·세태관을 알 수 있다.

정음문화사/A5신/324면/4000원

절대현재의 참사람

이서용 지음

이서용스님의 禪劍一如 사상을 담은 법어집. 감성적 자기나 이성적 자기나 모두 참 자기는 아니며, 고금을 초월하여 恒常하므로 참 자기를 알면 감성적 회로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적 모순에도 빠지지 않는다. 갈등하는 현대인에게 진실한 참 자기의 본래면목을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사는 길을 인도하고 있다.

불교영상회화사/A5신/356면/4000원

南으로 가는 헬리콥터

이영옥 지음

동아일보 신춘문예('82)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저자의 첫 창작집.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의해 유지되는 군대에서 개인이 받는 억압과 고통을 다룬 「새」와 광주항쟁 당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궐기를 다룬 「남으로 가는 헬리콥터」 등 10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다.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질서와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폭력적 세력에 대한 해부가 날카롭다.

동광출판사/A5신/304면/3500원

세상에 불상한 조선너편네

李圭泰 지음

문화의 전환기인 개화기 때의 복합적인 형태의 전통과 문물에 대한 성격을 고찰한 책. 액을 쫓기 위해 무당에게 의존했던 반면 외래종교와 서구문물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다. 무속·신앙, 풍수·성명 등의 전통관습과, 교육·신문·문화일반 등에 흡수된 외래문화가 어떻게 절충,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기술했다.

新太陽社/A5신/360면/3900원

내가 만나는 나

에리히 케스트너 지음 / 정성호 옮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스트너의 자전적 소설.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성장과정과 함께 모자간의 사랑과 기쁨, 슬픔 등을 묘사하고 있다. 숙녀들이 길고 통이 좁은 스커트를 입었던 것, 높게 치켜올라간 콧수염을 기르던 독일황제, 국왕 탄신일에

거행했던 열병식과 축제 등등 추억 속에 잠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재치있는 문체속에 펼쳐진다.

명지사/A5신/288면/3300원

人間과 倫理

文現相, 吳洙烈, 全禎泰 지음

인간존재론적인 가치철학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생활패턴을 제시한 책. 사회공동체로서의 인간과 윤리를 고찰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윤리사상을 검토하면서 민주주의 제형태와 공산주의이론을 분석 비판했다. 또 현대급진사상인 종속이론과 해방신학, 뉴 레프트운동을 해설하면서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윤리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大旺社/A5신/414면/6000원

중국인의 처세명언

모리야 히로시 지음 / 최지명 옮김

중국의 고전에 담긴 명언들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뽑아 실었다.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함이 제일'(「孟子」), '도덕은 모든 사업의 근본'(「葉根譚」),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論語」) 등 고전에서 발췌한 59개의 명구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설교하고 있다.

갑인출판사/A5신/292면/3000원

동남아시아

편집부 엮음

해외여행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담은 여행 가이드.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타일랜드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의 주요 관광

지와 교통편·숙박·식사·쇼핑안내를 상세히 수록했다. 또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성격과 관습을 '여행메모'에 설명하고, 주요 도시의 지도와 함께 특산물에 대한 소개도 했다. 부록에 4개국의 상용어로 각각의 기본회화를 수록했다.

민서출판사/B6변형/208면/5000원

발해국사 I

김정배, 유재신 엮음

중국의 연변대학 한인교수들의 발해사 연구논문을 모은 책. 위국충, 주국침의 「발해의 경제」와 훈춘현에 있는 발해유적을 통해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분석한 왕협의 「훈춘의 발해유적과 일본도」, 발해의 경제체제와 종족노예제 등 사회적 성격을 구명한 장박천, 정니나의 「발해의 사회성격」 등 10편의 논문을 실었다.

정음사/A5신/212면/3500원

홀로 있는 시간에

金泰吉 지음

「흐르지 않는 세월」 등으로 수필문학의 중후함을 보여온 저자의 철학에세이집. '나와 남의 사이' '최후의 일각' '우리는 어떤 時代에 살고 있는가' '大學生の 어제와 오늘' 등 4부로 나누어 짧지만 저자 특유의 철학적 에스프리가 깃든 60여편의 글을 한데 모았다.

삼육출판사/A5신/342면/3500원

오픈하이머 청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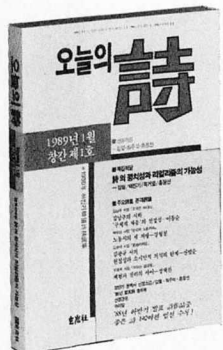
양도원 편역

원자폭탄 제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핵물리학자 J.R. 오픈하이머에 관한

창간호

오늘의 詩

김철·최두석·홍정선 엮음



현암사에서 반년간 재수록전문지 「오늘의 소설」에 이어 「오늘의 詩」를 창간했다. 88년 하반기 우리시의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다채롭게 꾸몄다.

각종 문예지와 동인지에 발표된 엄청난 양의 시를 젊은 문학인의 시각으로 엄선해서 뽑았다. '당대의 문학적 의미와 시적 성과에 충실한 작품'이 선정의 기준이라는 데서 이 잡지의 진로를 예견할 수 있다.

창간호엔 김철, 백진기, 복거일, 홍정선씨 등 네명의 논객들이 「시의 정치성과 리얼리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의 정치성」과 중산층의 자기성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동순씨가 김남주의 「조국은 하나다」를, 강형철씨가 백무산의 「만국의 노동자여」를, 신범수씨가 김광규의 「좀팽이처럼」을, 정재찬씨가 오봉옥의 「지리산 갈대꽃」을 각각 서평한 글을 수록했으며 88년 하반기에 발표된 시 작품 가운데 140여편을 엄선, 게재하고 있다.

현암사/A5신/408면/3800원

논문집

韓國民主行政論

한국행정학회 엮음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됐던 한국행정학회(회장 金永燮) 제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22편을 모은 「韓國民主行政

論」이 발간됐다.

한국의 공공행정이 차지해야 할 위상과 민주사회에 걸맞는 공공행정의 쇄신방향 모색에 중점을 두고 ①공공행정의 이념 설정과 지도력 정립 ② 한국관료제의 내적 구조변혁 ③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지향 ④ 민주적 공무원상과 공공윤리 정립 ⑤ 공공정책과 언론 및 시민의 협력관계 ⑥ 국제적 비교시각에서 본 한국행정의 미래 문제 등 6개 분야의 논의들을 모았다.

조용효 한영환 허범 김종립 김호진 박동서 박명수 나기산 안병영 지근수 문경삼 박성조 차만재 김영중 유종해 전중섭 배성문 원우현 류근일 등이 필자로 참여했으며, 10여편에 달하는 재외 한인학자들의 논문이 같이 수록돼 특징적이다.

고시원/A5신/576면/8000원

자료 세편을 한권으로 묶었다. 제1부에서는 핵물리학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고, 2부에는 독일의 희극작가 킵하르트의 작품 「오펜하이머, 청문회」를, 3부에는 그에 대한 편역자의 연구논문을 실었다.

아바벨/A5신/184면/3000원

사랑과 고독이 주는 의미

전규태 지음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사랑과 고독의 문제를 진솔한 서간문체로 엮은 에세이집. 원래 학생잡지에 1년간 연재됐던 글을 모은 것으로, 저자는 “이 조그마한 책자가 사랑과 고독 때문에 번뇌해야 할 주니어들에게 좋은 묘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행림출판/A5신/150면/2300원

消費者教育學

李基春 지음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딪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소비자교육학의 이론과 실례를 다룬 책. 소비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로 시작해서 각종 소비자교육이론, 소비자교육의 여러 흐름, 그리고 소비자능력의 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소개했다.

교문사/A5신/324면/5800원

중국사학입문

何啓君 지음 / 조관희 옮김

중국의 역사와 종교, 철학, 문학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쉽게 설명한 중국학입문서. 중국고대사의 대가인 고힐강의 답론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 역대의 史書를 소개하고, 춘추 전국시대에서 청대에 이르는 경서연구 과정을 설명했다. 각 시대의 생활상과 사상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개괄, 중국문화사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원/A5신/246면/3800원

韓國企業經營의 實態

韓義泳 지음 / 河在麒 옮김

한국기업을 개별경제적 관점에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책. 88년 7월 일본에서 출간된 것을 다시 번역했다. 한국의 기업발전과 배경에 대한 고찰로 한국기업의 고도성장 경위와 경영관을 살피고, 한국기업경영의 기초와 생산·기술관리·마케팅·회계·인사관리를 기술했다. 한국기업의 과제를 분석하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다.

삼성이데아/A5신/328면/3500원

더 아픈 사랑을 위하여

許英子 지음

시인이며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허영자씨의 수필선집. 특히 ‘사랑’과 ‘소망’을 주제로 한 글들만을 추려내 수록했으며, 「신설의 아침에」 「낯선 아름다움을 향하여」 「궁지와 열광의 나날」 등의 글들을 통해 특유의 부드럽고 잔잔한 필치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상/A5신/304면/3500원

구약의 길잡이

자크 뒤세 지음 / 심재울 옮김

구약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재구성한 이색

적인 성서안내서. 종래의 지루한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주제에 따라 해당 성서본문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담을 비롯한 27명의 화가들이 엄격한 고중에 따라 당시의 모습들을 재현해놓고 있어 누구나 구약의 의미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弘益社/A5신/258면/3500원

民族統一과 韓國文學

韓國文學評論家協會 지음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해마다 발간해오고 있는 비평선집 여덟번째권. 문학일반론·시인론·작가론으로 크게 나누어 「한국농민문학의 역사적 변천고찰」(하병우) 「한국현대저항시의 연구」(조병춘) 「폐쇄적 자기인식과 의식의 공간화」(홍정운) 등 88년에 발표된 평론 33편을 수록했다.

명지사/A5신/406면/6500원

韓國政治의 民主化

韓國政治學會 지음

「한국정치학회」회원들의 민주화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모은 책. 개발도상국들의 민주화과정을 비교 고찰하면서 한국의 정치집단과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 사회상황 등을 구명한 논문을 실고 있다. 또 민주화의 대외 환경으로서 남북한관계에 대한 논의도 다뤘다. 閔俊基, 金國振, 金光洙, 崔章集, 鄭大華 등 22명의 논문을 실고 있다.

法文社/A5/674면/9500원

보쌈

宋基淑 지음

민담은 민중들의 삶과 지혜, 가치관을 익살

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 송기숙씨가 오랫동안 수집해온 민담들을 새롭게 엮어 책으로 묶었다. 「정승 장인과 능청 사위」 「저승 빛과 이승 빛」 「호랑이 잡는 때」 등 47편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선조들의 해학과 슬기를 배울 수 있다. 권말에 송기숙의 논문 「한국설화에 나타난 민중혁명사상」을 실어 상징적인 설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게 했다.

실천문학사/A5신/318면/3500원

죽음의 사색

金烈圭 외 지음

인간은 삶의 한 복판에서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영혼 및 정신과 마주한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4편의 시론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사고를 살핀 金烈圭의 「민속과 민간신앙에 비친 죽음」, 죽음을 철학적 관점에서 본 鄭柄朝의 「삶과 죽음의 번뇌」, 죽음의 종교적 입장을 전개한 鄭鎭弘의 「죽어 되시는 선비」와 죽음에 대한 심리를 분석한 李時炯의 「임상에서 지켜보는 죽음」 등이 수록돼 있다.

書堂/A5신/310면/3800원

200자 안내

자료집

韓國雜誌總覽

한국잡지협회 지음



우리나라 근대잡지의 효시인 「少年」지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국잡지협회(회장 李鍾均)가 국내외 잡지 현황과 자료를 집대성한 「韓國雜誌總覽」을 펴냈다. 이번의 1989

년판은 1972년과 1982년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됐다.

모두 6篇으로 구분한 가운데 제1편 ‘한국잡지발달사’에서는 1980년의 언론통폐합에 따른 잡지등록 취소를 비롯, 신문·방송사의 잡지경영, 잡지디자인의 혁신, 종합지의 폭로저널리즘, 저작권과 노동쟁의의 문제 등 최근 우리 잡지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광범하게 다루고 있다. 제2편 ‘세계잡지계의 동향’은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영국, 서독, 일본 등지에서 간행되는 잡지들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제3, 4, 5, 6편은 자료편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잡지의 개요를 밝힌 ‘잡지요람’, 刊別과 有·無價誌를 막론한 ‘정기간행물일람표’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잡지협회/A5신/484면/5000원

자료집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5年史

문예진흥원 지음



지난 1973년 10월 개원한 이래 활발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벌여온 문예진흥원(원장 呂石基)의 역사를 개괄한 「韓國文藝振興院 15年史」가 발간돼, 고도산업사회로 성장

한 70년대 이후 우리 문화예술계 각 분야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모두 4편으로 구성된 ‘서편’에서는 문예진흥원 개원 당시의 문화적 환경과 개원과 정 및 연혁을, ‘문예진흥기금편’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경위와 집행의 내역을 다루고 있다.

‘사업편’에서는 각 장르별 예술창조자 지원사업의 현황을 비롯,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축제활동 및 사회교육, 문예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걸친 진흥원의 사업내용들을 상세히 밝혔다.

‘자료편’에는 진흥원 활동상황을 정리한 주요일지와 진흥원 제정 시상제도의 수상자 일람표, 주요법령 및 규정 등을 한데 모았다. 문예진흥원/B5/424면/비매품